


☐ 홈 > 뉴스 > 해운 > 정책

## 3개 국적선사 COA 신규 가입

[1516호] 2011년 05월 13일 (금) 10:43:24

곽용신  chaser@maritimepress.com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대표적인 근해선사들이 최근 컨테이너오너협회(Container Owners Association ; COA)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COA코리아(대표 권오인, STX팬오션 상무)는 최근 고려해운과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3개 국적선사가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 정회원이 7개사로 늘어나게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선사, 리스업체, 제조사 등 전세계 컨테이너오너들이 모여 만든 COA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지사를 설치했고 당시 국적선사중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었다. 지난해 STX팬오션과 양해해운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정회원사가 4개사로 늘어났고 특히 STX팬오션의 권오인 상무가 제2대 COA코리아 대표로 취임하면서 국적선사들의 가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COA코리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스조인 전병진 상무는 "현재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7개 정기선사 외에 나머지 근해 피더정기선사들도 COA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조만간 한국-중국간 카페리선사 협의체인 황해객화선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황해객화선사협회 전회원사가 COA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OA 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2500달러의 회비를 내야하지만 국적선사들은 올해까지 500달러에 가입할 수 있다. COA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물론, COA 글로벌 미팅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제8차 COA 글로벌 미팅이 개최될 예정이다. COA 정회원사로 등록된 7개 국적선사는 이번 제8차 COA 글로벌 미팅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